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4차산업혁명 플랫폼

사람 중심 경제와 4차산업혁명의 융합

김 대영¹

I.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2가지 성장과 2가지 경제로 이루어져 있다. 두가지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수요 측면과 혁신 성장의 공급측면이다. 그래서 수요 측면과 공급측면의 쌍끌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가지 경제는 공정 경제로 대·중·소 상생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고용률을 올리는 경제구조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의 수요 주도 성장모델에서 임금 주도 성장보다 투자 주도 성장과 소비 주도 성장이 중요한데 이것들이 제외되어 있으며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에서는 상충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없다. 또한 사람중심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서로 경제구조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프레임워크인 ICC(Industrial Connection & Collaboration)를 바탕으로 생태계 내의 개별적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연합한 생태계 기업 SHC(Servant Holding Company)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SHC(Servant Holding Company) 생태계기업

1. SHC 개요

SHC(Servant Holding Company)는 경제생태계의 멤버들이 참여해서 주인이 되는 합자조합과 주식회사로 구성되며 합자조합이 소유하는 지분과 외부 투자자가 소유한 지분을 가진 합자조합이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진다. SH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생태계 전체가 참여하여 주인이 되며 생태계 전체에 의해 운영되며 생태계 멤버들의 미래가치를 현재화 한 자본을 소유하고 또 소유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기여 한대로 자본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대상들의 내부 생태계 멤버들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적인 기능이 있고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기업이 되는 생태계기업이다.

협동조합과는 다음의 3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첫째 차이가 나는 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의 내부 조합원들 위주의 조합주이지만 SHC는 개별소유권과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조합주의와 반대되는 개별 자유주의와 조합주의가 융합되어 있다. 두번째는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로 투자를 받고 나머지는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SHC는 투자를 받기 위해

¹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SHC Lab 대표)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셋째 협동조합은 외부에 배타적인 이익체제이지만 SHC는 외부와 동반성장 구조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이익체제이다.

이 SHC의 목적은 경제 생태계에서 생태계 멤버들이 연합하여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소유하면서도 동시에 개별적으로 자신이 기여 한대로 독립적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투자를 받아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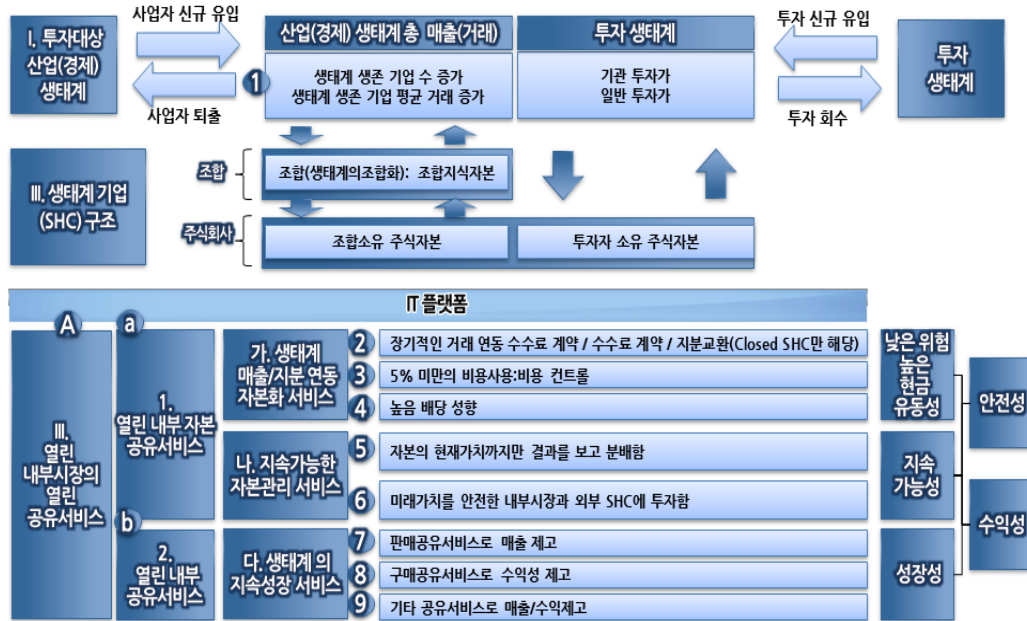


Figure 1 SHC 생태계 기업구조와 생태계와 서비스

2. SHC 구조

1). 생태계, SHC 기업지배구조

SHC는 크게 생태계, 생태계 기업 SHC, 그리고 SHC에서 운영되는 IT 플랫폼과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SHC 생태계 <Figure 1>의 I. 투자대상 산업(경제)생태계에서와 같이 생태계 멤버들이 있고 SHC와 SHC 멤버들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생태계가 있다. 투자 생태계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들을 생태계 차원에서 SHC라는 기업구조로 연합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IT 플랫폼으로 생태계 멤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운영되는 기업이 SHC이다.

SHC 기업구조는 <Figure 1>의 II. 생태계기업(SHC)구조에서와 같이 합자조합과 주식회사로 구성되며 합자조합이 소유하는 지분과 외부 투자자가 소유한 지분을 가진 합자조합이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SHC의 합자조합은 생태계의 참여멤버들이 합자조합의 조합원들이 되어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소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조직이다. SHC의 주식회사는 실제로 SHC IT 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이며 외부적으로는 SHC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조직이다.

SHC의 IT 플랫폼은 생태계 멤버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현할 필요가 없고

생태계 멤버들과 서비스가 많아질 때 필요에 따라 구현하며 SHC가 생태계 멤버들에게 자본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적인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미리 정해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운영한다.

2). 열린공유서비스

SH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Figure 1>의 III. 열린내부시장의 열린 공유 서비스와 같이 지주회사나 대기업 그룹의 내부 시장과 내부 시장의 서비스 개념과 비슷한 투자대상인 생태계의 멤버들을 위한 열린 내부 시장과 열린내부시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SH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Figure 1>의 1.열린내부자본공유서비스와 2.열린내부공유서비스의 2가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열린내부공유서비스를 기존의 판매공유, 구매공유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로 기존의 공유서비스와 비슷하지만 열린내부자본공유서비스는 SHC의 독특한 서비스이다.

SHC 열린 내부자본시장 서비스는 다시 <Figure 1>의 가. 자본화(증권화) 서비스와 나.지속가능한 자본관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자본화서비스와 지속가증한 자본관리 서비스는 SHC의 종류인 Closed SHC²와 Open SHC³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본화 서비스는 열린내부 자본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본화 (증권화서비스)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Open SHC는 생태계 멤버이며 투자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매출과 비용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금흐름의 일정비율을 약정하고 그것을 SHC의 주식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여 집합적으로 증권화 한다. Closed SHC는 생태계의 멤버이며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주식을 합자조합에 집합적으로 출자하고 그것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증권화 한다.

SHC의 지속가능한 자본관리 서비스는 자본투자를 받은 금액을 결과를 기반으로 분배하고 결과가 검증이 되지 않은 투자금은 안전한 투자처에 공동의 목적으로 투자되어 지속가능하게 자본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Open SHC의 경우 단기 분배는 생태계멤버(합자조합멤버)의 결과 실적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의 약 20%, Closed SHC인 경우는 투자금의 약 50%)를 생태계 멤버(합자조합멤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Open SHC의 장기투자는 단기에 분배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금(투자금의 약 80%, Closed SHC인 경우는 투자금의 약 50%)을 공동의 목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에

2 Closed SHC는 SHC 생태계의 멤버 즉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주식을 집합적으로 증권화하여 Closed SHC 전체로 투자를 받아 개별 멤버기업들이 성장하는 만큼 Closed SHC의 지분을 변동적으로 소유하게 하면서 개별 멤버 기업들에게는 내부 자본시장 역할을 하면서 내부 공유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게 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는 연합지주회사 기능을 하는 기업이다.

3 Open SHC는 투자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매출과 비용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금흐름의 일정비율을 약정하고 그것을 SHC의 주식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여 집합적으로 증권화하여 Open SHC 전체로 투자를 받아 개별 멤버 기업들에게는 내부 자본시장 역할을 하면서 내부 공유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게 하고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는 기업이다.

투자하고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단기 분배금과 장기투자금의 비율은 단기에 생태계 멤버들에게 생산 참여 인센티브로 주어지게 되는데 배당과 단기 자본 이익 분배금인 인센티브가 합쳐서 경제적 흐름의 일정비율을 약정해서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20%정도의 증권화에 따른 자산화 혜택이 더해져 약 120%정도를 단기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때 생태계의 성장성에 따라 증권화에 따른 자산화 혜택이 5%~30% 정도 변동될 수 있다.

<Figure 1>의 다. 생태계의 지속성장서비스는 SHC의 지속가능한 자본관리서비스에서 장기투자자금을 사용하여 생태계 멤버들의 성장을 위한 판매 공유서비스, 구매공유서비스 및 다양한 공유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이윤이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그 회수된 이윤과 이자는 다시 증권화되어 SHC의 주식가치(시가총액, 자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한다.

III. SHC 기반 사람중심 경제

1. As-Is 사람중심 경제의 문제점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방향은 2가지 성장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 정책이 있다. 그리고 2가지 경제 정책인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과 공정 경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성장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을 유지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요측면 성장 정책이 국가전체의 총유효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측면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자본과 인적자본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일자리 중심 정책과 공정 경제 정책도 시장에서 잘 동작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2가지 성장 정책의 성장성과 2가지 경제 정책의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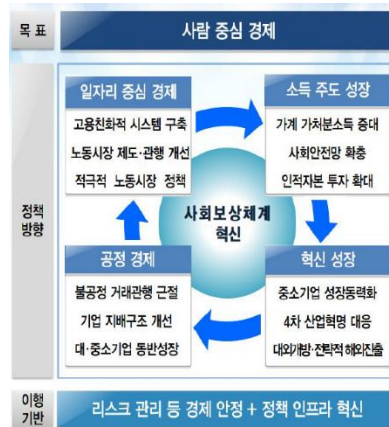


Figure 2 기존 사람중심경제

현재 문제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인 수요 주도 성장 측면에서 분석하고 혁신 성장 정책을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인 공급주도 성장 개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도 혁신 성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분석한다.

1).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점과 해법

소득주도성장은 수요주도성장의 한 부분에 속해 있다. 총유효수요 중에서 정부를 제외한

민간총수요는 다음과 같다.

$$D(\text{민간총유효수요}) = C(\text{소비}) + I(\text{투자}) + NX(\text{순 수출})$$

거시경제에서 노동 소득의 역할은 수요측면에서는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급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진보시키는 촉매로서 사용될 수 있다.

케인스주의를 따르는 뉴케인지스의 노동 소득을 기반으로 한 수요 주도 접근법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적절한 물가수준관리를 통해 실질임금증가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적극적 노동시장개입으로 재교육에 의한 고용률 증가와 임금상승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분배인 1차분배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포스트케인스주의 접근법은 1차 분배인 기업에서 소득분배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소득증대가 소비 증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Bhaduri 와 Marglin의 이론에 근거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분석해보면 이 수요 체계인 경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체계가 이윤주도인 경우는 총유효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수요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면 총유효수요가 증가한다는 칼레츠키의 소득주도 성장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별 기업이나 개별 노동자 수준의 미시경제나 산업차원의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율을 높이더라도 때 고용이나 기업경쟁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포스트케인스 유형의 소득주도 유형인 기업의 1차분배에서 소득 증대를 시도하였었던 선진국들은 기업경쟁력 특히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면서 소득분배율 개선과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를 시도했다. (김대영, 4차산업혁명을위한 SHC기반 융합경제-수요주의 경제학과 공급주의 경제학의 융합, 2017)

그러나 현재 사람중심경제의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환경에 대한 분석과 기업경쟁력과 고용률 분석없이 시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취약기구지원과 인적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보다 총유효수요 증가에 보다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을 증대시키는 구체적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하게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이론에 기반한 정책이 없다.

2). 혁신 성장의 문제점과 해법

현재 혁신성장 정책은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의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촉진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하며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하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슈페터의 파괴적 혁신 이론과 독점이론이 있다. 슈페터는 기업가와 기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경제적 분석의 틀에 도입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가에게 자유를 주고 독점을 허용하며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 분야에서 독점 옹호 정책을 펴고 있다. 구글의 무료 검색은 플랫폼경제의 양면시장이론으로 독점을 허용하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독점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고 검색의 바이두, 전자상거래의

알리바바 등과 같은 플랫폼 독점기업을 미국에 대칭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자국시장의 규모가 큰 장점을 활용하여 미국을 벤치마크 패스트 팔로우하며 자국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은 기존 경제를 파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네오-슈페터리안(Neo-Schumpeterian) 경제학에서는 슈페터가 강조했던 혁신과 함께 혁신을 일으키는 요소로 기술, 지식, 기업, 제도를 강조하며 생태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제학자 마주카토는 <기업가형 국가>에서 국가의 혁신 선도를 주장하고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막는 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혁신 주도 성장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경제성장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A(\text{총요소생산성})h(\text{근로1인당인적자본})L(\text{취업자수})^{\alpha}K(\text{자본량})^{1-\alpha}$$

α : 산출물의 노동탄력성

이때 총요소생산성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혁신산업으로 투자가 취업이 늘어나지만 기존 산업의 취업자수와 자본량 투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경제성장이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산업 플랫폼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장을 열어주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산업이 대체되며 경제참여자들인 국민과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참여자들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of Production)의 혁신이 중요하다. 총요소생산성은 슈페터적인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 인프라, 가격 경쟁력 있는 비용구조,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 높은 사회적 인적 자본 수준과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업과 사회 전체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의 총체적인 생산성이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의 혁신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투자하는 자본시장 구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혁신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규모 자본투자는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경제, 정치 사회 인적 인프라 구조의 생산성 혁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분(자기자본) 투자의 대상과 양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구조와 자본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과 전체 지식기반 인프라의 혁신 성장 구조가 필요하다.

3). 공정경제구조와 일자리 중심경제의 문제점

공정경제 정책방향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며 일자리 중심경제의 정책방향은 고용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경제구조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와 구체적인 경제적 연결 구조가 부족하며 일자리 중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구조와 연결 구조가 부족하다. 특히 기존의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은 대중소 동반성장을 더 어렵게 하고 일자리 중심경제를 구현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수요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그리고 일자리중심경제와 충돌하지 않고 서로 시너지를 내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경제구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To-Be SHC기반 사람 중심 융합경제 모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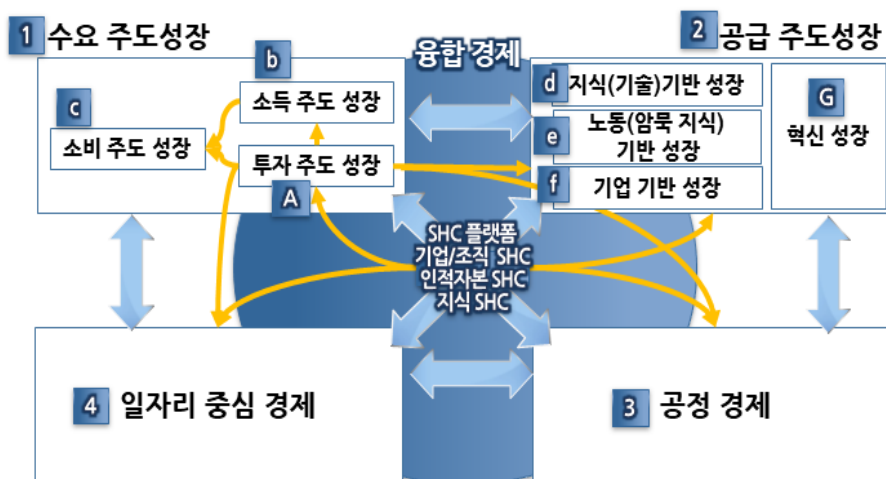


Figure 3 SHC기반 사람중심 융합경제

투자대상들을 융합하여 안전하게 투자하는 SHC 구조를 사용하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와 공정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융합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다.

SHC기반 융합경제는 투자주도성장을 통해 수요주도성장의 소득주도성장, 소비주도성장을 지원하고 공급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공정경제를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성장과 경제의 핵심이 된다. 또한 융합경제구조와 투자주도경제의 지원을 받아 수요주도성장과 공급주도성장의 2가지 성장과 일자리 중심경제와 공정경제는 모두 서로를 지원한다.

IV. SCH기반 융합경제적용

1. SHC의 자본화 대상에 따른 분류

SHC는 증권화(자본화) 대상에 따라 <Figure 4>의 기업 및 조직 SHC, 인적자본(노동, 인적자산) SHC, 그리고 지식 SHC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업 및 조직 SHC이다. 이때는 투자 대상(증권화대상)이 주식회사인 경우는 Closed SHC는 대·중·소 주식회사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기자본(Equity)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Open SHC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및 조직이 주식회사가 아닌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공공조직인 경우는 Open SHC로 참여할 수 있다.



Figure 4 SHC의 자본화 대상에 따른 분류

둘째 인적자본(인적자산, 노동) SHC이다. 투자대상이 생태계 내에서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Open SHC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적자본 SHC로 이전의 인적자본이 교육등에 투자한 자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적자본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흐름을 자산화하고 증권화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인적자본 SHC로 노동자들의 생산참여가 자본화되어 자본을 소유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지식(자산기반) SHC이다. 투자대상이 생태계 내의 프로젝트(가상기업), 특허, 빅데이터, IP등이다. 이것들을 공유하고 미래가치를 현재화는 자본을 형성하고 그것을 결과를 기반으로 기여한대로 분배하며 결과에 따라 자본을 변동적으로 소유하고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공동의 지식자산 자본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대상 중에 4차산업혁명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상기업(프로젝트)의 지식자산을 SHC에서 자본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참여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자본과 자본이익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지식자산 특허등도 개별적인 소유와 공동의 소유가 SHC로 합리적인 공유가 가능해지고 함께 공유하며 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 사람중심경제 구현을 위한 SHC기반 융합경제

1). 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경제참여자들을 SHC융합경제구조를 기반으로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소유하게 하여 투자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참여자들이 자본을 소유하게 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주도 성장이 모든 성장과 경제를 지원한다. 또한 혁신성장이 현재는 공급사이드에 있지만 SHC기반 융합경제에서는 수요사이드의 투자 주도 성장과 연결되어 경제 전체를 혁신하기 때문에 혁신성장은 모든 성장과 경제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Figure 5>의 위편에는 공급주도 성장과 수요주도성장을 이루는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표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1. 수요주도 성장은 A.투자자도성장과 b. 소득주도성장, c. 소비주도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 공급주도성장은 G 혁신성장이 a.지식(형식지식, 기술)기반성장성장, b.인적자본 (암묵지식)기반성장 c.기업기반성장으로 이루어져있다.

<Figure 5>의 왼편에는 인적자본기반 SHC가 1. 수요주도성장과 A.투자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b.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인적자본기반 SHC가 사용되고 c.소비주도성장을 위해서도 인적자본기반 SHC가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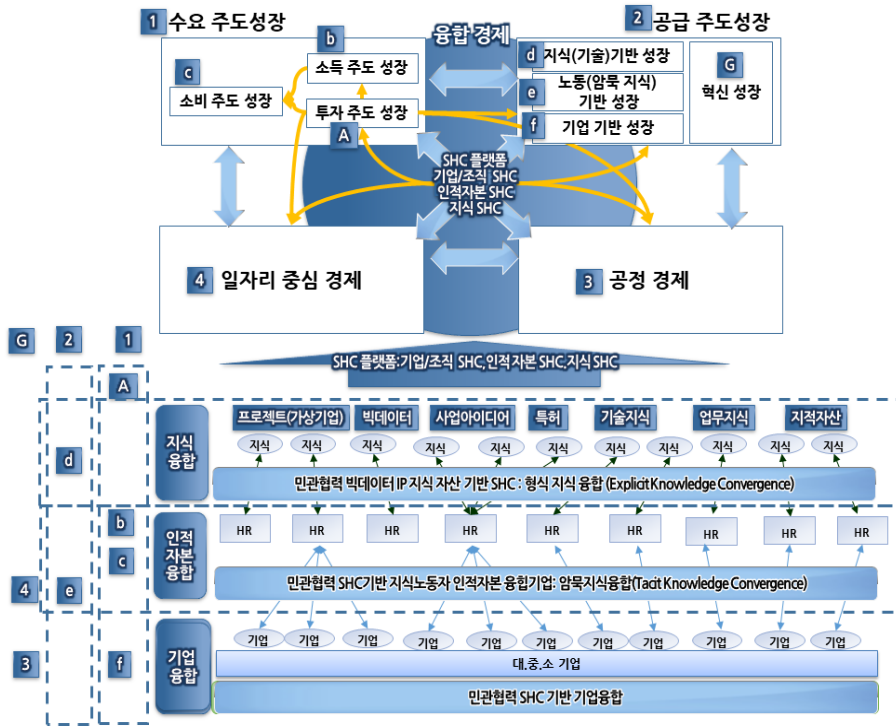


Figure 5 SHC 플랫폼(지식자산기반 SHC, 인적자본기반 SHC, 기업자산기반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2). 수요 주도 성장

수요주도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소비주도 성장 그리고 투자주도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은 인적자본 SHC를 활용하여 산업이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동소득을 SHC로 자본화하여 노동도 자본이익을 얻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임금소득에 자본소득을 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소비주도성장은 노동자나 자본가가 소비하는 소비의 일부를 SHC로 자본화 할 수 있는데 소비 SHC는 인적자본 SHC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람의 생산에 대한 결과로 임금을 받지만 임금을 소비하는 것이 생산의 수요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인적자본 SHC의 소득을 자본화할 수 있고 소비를 자본화할 수 있다. 이때 국민의 소비를 자본화하는 소비 SHC는 기본자본(Basic Equity Based Capital)으로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 소외를 위한 기존의 해법 중에 하나인 재원마련문제와 합리성과 도덕적 헤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주도성장은 모든 경제참여자들이 SHC를 기반으로 투자대상이 되게 하여 자본을 소유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투자주도 성장이 융합경제구조와 함께 전체 성장과 경제를 이끌게 된다. 실제로 공급주도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SHC, 노동기반 SHC 기업기반 SHC는 안전한 투자구조를 만들고 그 지식기반 SHC 노동기반 SHC 기업 기반 SHC에 투자가 일어나게 할 때 공급주도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투자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소비주도 성장을 이루어 공급과 수요의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SHC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자본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융합하는 SHC기반 기업융합을 제외한 지식자산기반 SHC와 인적자본기반 SHC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노동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대상이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과 지식도 자본을 소유하고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3). 공급 주도 성장

공급주도의 성장은 지식기반성장, 노동기반성장, 기업기반 성장을 혁신성장이 지원하면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이 혁신성장이 각 성장요소를 SHC로 지원하는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성장은 지식자산기반 SHC가 주도하는데 이 지식에는 여러 기업과 민관연이 함께 개인이 소유하면서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프로젝트(가상기업, 가상공장), 빅데이터, 사업아이디어, 특허, 기술지식, 업무지식, 지적자산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암묵지식)기반성장은 인적자본기반 SHC (SHC기반 인적자본 융합기업)가 주도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SHC를 통해 자본화하여 혁신경제와 동반성장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셋째 기업기반성장은 기업자산기반 SHC (SHC기반 기업융합)이 주도하는데 대중소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대형화 성장 등 기업을 연합하는 SHC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룬다.

4). 일자리 중심경제와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경제는 인적자본 SHC가 기업과 산업 SHC와 함께 동반성장 구조를 이루며 혁신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 가운데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며 이루어질 수 있다. SHC의 투자 받은 자본 중에 장기투자 부분을 고용이 확실히 되고 교육을 받으면 인력공급이 확실하게 되는 분야에 투자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중심경제는 SHC 융합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공급측면에서 인적자본 SHC를 구축하고 수요측면에서 투자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인적자본 SHC에 투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투자자금을 기반으로 공급측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공정경제는 공급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의 기업자산기반 SHC를 활용하여 혁신성장 구조를 만들고 수요측면의 투자주도성장과 연결되어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서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안전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V. SHC기반 4차산업혁명

1. 산업생태계의 수평·수직 통합

산업 가치사슬의 흐름에서 기업이나 서비스를 통합할 때 수직과 수평의 2가지 통합의 방향이 있다. 첫째 수직 통합은 가치사슬의 흐름과 생태계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중견기업이 경제적인 힘을 기반으로 생태계나 가치사슬 흐름의 참여자들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통합을 말한다. 대기업의 원청 하청관계나 가치사슬의 흐름에서 계열 자회사이거나 수직적으로 상호독점관계일때의 통합이다. 둘째 수평통합은 참여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와 기업을 통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은 IT기술이 발달되며 대부분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의한 수직적 생태계외에는 수평적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에는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것이 어려워 전체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2. 산업가치사슬의 수평·수직 융합에 SHC기반 사람중심경제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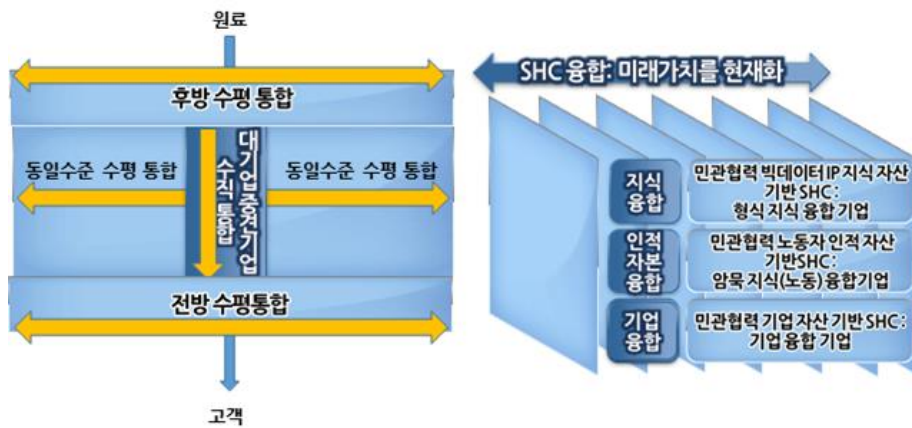


Figure 6 산업가치사슬의 수평수직통합에 SHC기반 사람중심경제적용

산업가치사슬의 수평·수직 통합에 SHC를 적용하여 기존의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가치사슬이나 생태계의 멤버들이 참여하여 연합하여 추가적으로 미래가치를 현재화한 자본을 기여한대로 가지게 되면 현재의 소수만이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참여자(기업과 사람)들이 모두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주도 성장과 공급혁신에의 한 공급주도 성장이 쌍끌이로 사람중심 경제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또한 지식기반 SHC를 통해 다양한 협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ICBM+AI⁴를 적용하지 않는 기존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⁴ I: 사물인터넷(IoT), C: 클라우드, B: 빅데이터, M: 모바일(Mobile)등 데이터활용 기술군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능력을 구현하는 기술군을 지칭

3. 기존 한국형 4차산업혁명 Framework⁵

국내 주력산업의 강점을 연결하고, 새로운 성공동인을 강화하며, 당면한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Framework의 하나로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는 ICC(Industrial Connection & Collaboration)가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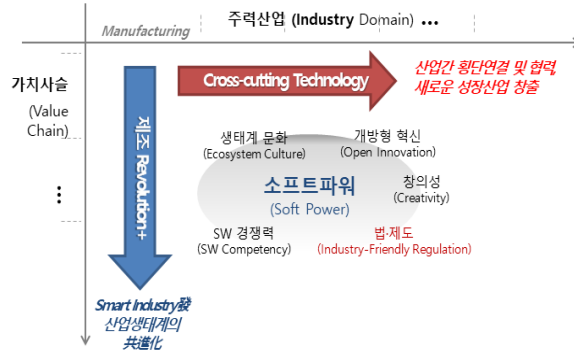


Figure 7 ICC의 3대역량

ICC는 선진 제조 강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 ‘연결과 협력’이 핵심개념으로 3가지 핵심역량을 필요하다. 첫째는 제조혁신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축적된 강점을 극대화하고, 다른 산업에 이점을 활용하는 역량이다. 둘째는 CCT(Cross-cutting Technology)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산업간 횡단연결을 위한, 기술 및 플랫폼 역량을 말한다. 세번째는 Soft Power의 역량으로 창의 지향, 脫 境界, 규제 완화 등 사회·문화·제도 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 의한 CCT 기술은 <Figure 8>와 같이 입체적인 산업융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기존 4차산업혁명 프레임워크는 노동소외 문제와 혁신경제와 기존 경제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와 해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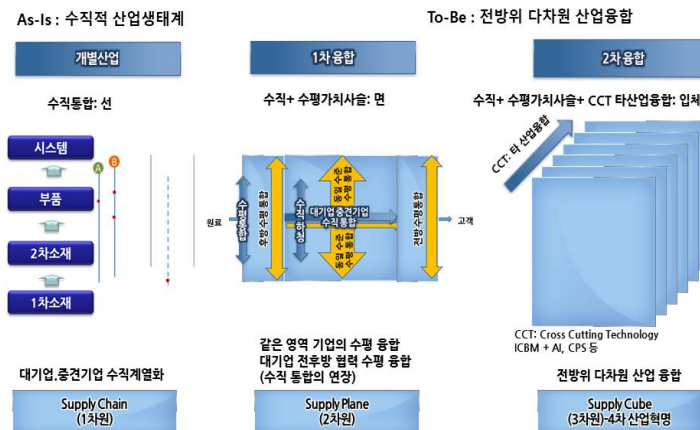


Figure 8 4차산업혁명의 3차원 융합개념(2차융합)

⁵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Framework,

4. SHC기반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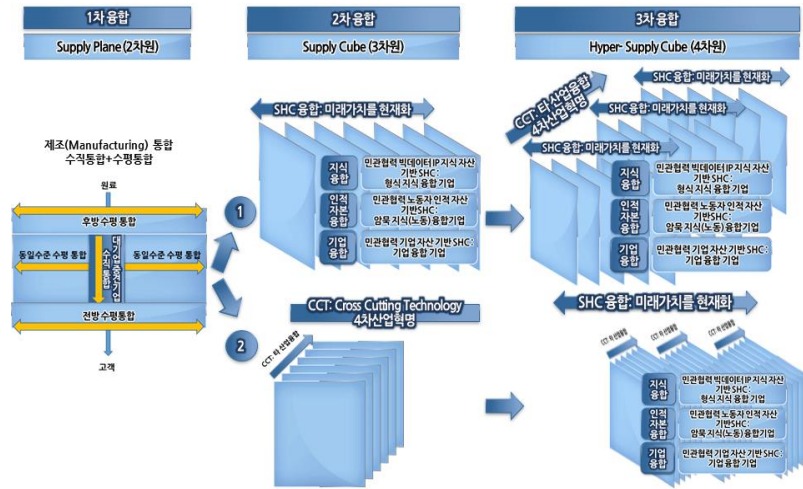


Figure 9 4차산업혁명의 SHC 해법의 2가지 접근법

<Figure 9>의 1차융합이 산업 가치 사슬의 수직통합과 수평통합이라고 할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직통합,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직통합 전후방의 수평통합,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생태계간의 수평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평통합은 구현이 어려워 많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1차 융합위에 4차산업혁명을 위한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접근법이 가능하다. 산업 전체 혹은 산업의 한 부분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3가지 방법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첫째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때 <Figure 9>의 윗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제조업을 기존의 기술, 서비스의 통합만으로 1차융합한 기존의 상태에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를 사용하여 지식과 노동과 기업을 융합하여 2차융합을 적용한다. 그리고 다시 4차산업혁명의 CCT기술을 적용하여 타산업을 융합하는 3차융합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 CCT 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다. 2차 융합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산업들을 융합하고 이러한 과정에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를 적용하여 지식, 노동,과 기업을 융합하는 3차융합을 적용한다.

셋째 SHC기반 사람중심경제와 4차 산업혁명 CCT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VI.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4차산업혁명 플랫폼의 적용

1. SHC기반 사람중심경제적용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플랫폼의 열린공유서비스 적용은 1차적으로 열린 자본공유서비스를 적용하여 멤버들에게 약 20%정도는 단기에 분배하고 나머지 약 80%의 투자금을 생태계 멤버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공유 서비스, 공정경제를 위한 공유 서비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경제를 위한 공유 서비스에 투자하고 회수한다.

열린공유서비스의 구체적인 사람중심경제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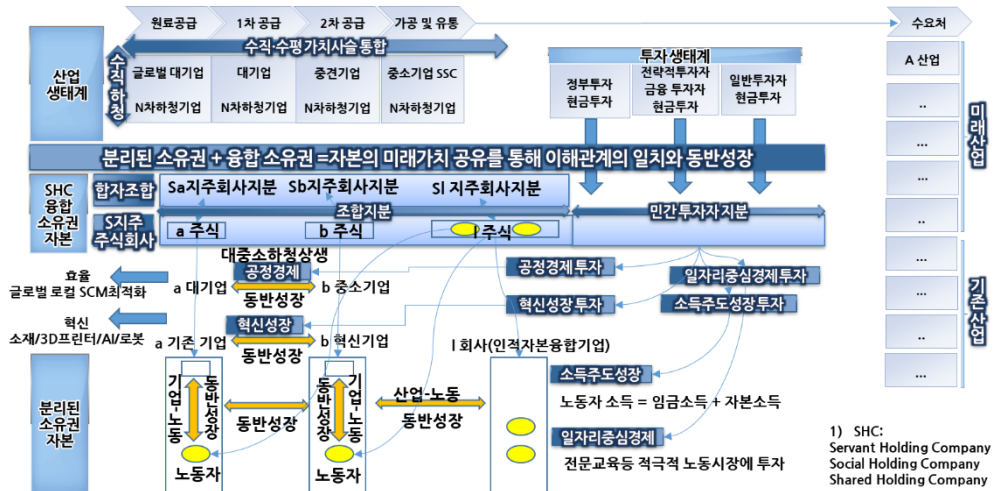


Figure 10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플랫폼 적용

첫째 소득주도 성장 투자는 인적자본 융합 SHC와 기업 SHC의 SHC를 통해 노동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거나 기업 SHC 안에 노동의 인적자본의 참여를 통해 노동과 기업의 동반성장 구조를 이루는 것을 노동 소득의 자본화가 가능하다. 이때 노동이 SHC를 통해 자본의 성장성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과 산업에게도 추가적인 이익과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어 기업도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투자에 의해 투자를 받아 자본이익을 단기에 받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소득이 20%이상 올라가고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를 위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증대된다.

둘째 일자리 중심경제이다. 노동이 스스로 자본화한 자본과 자본투자를 받은 것 중에 중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인적자본, 노동이 되도록 자금 투자를 하고 노동의 고용이나 추가 임금상승분등을 기반으로 회수한다.

셋째 공정경제이다. 대중소상생의 목적이나 중소기업도 생태계 전체의 힘을 모아 경쟁력을 가지고 SHC를 통해 자본투자를 받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20% 정도의 자본이익을 얻고 나머지 80%로 대.중소 상생 동반경제나 중소기업 대형화와 효율화, 경쟁력제고에 투자되고 회수된다.

넷째 혁신경제 투자는 이를 위한 대중소 벤처기업, 학교, 연구소, 전문인력, 글로벌 참여자들의 열린혁신체계와 그것을 위한 공유서비스와 합리적인 분배구조가 필요하다. SHC 플랫폼은 참여한 참여자들에 단기적인 자본이익과 중장기적인 공동투자 자금으로 혁신의 동력을 얻고 협업을 통한 효율화와 혁신의 시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투자회수 모델의 예를 살펴보면 <Figure 11>와 <Table 1>과 같고 그 가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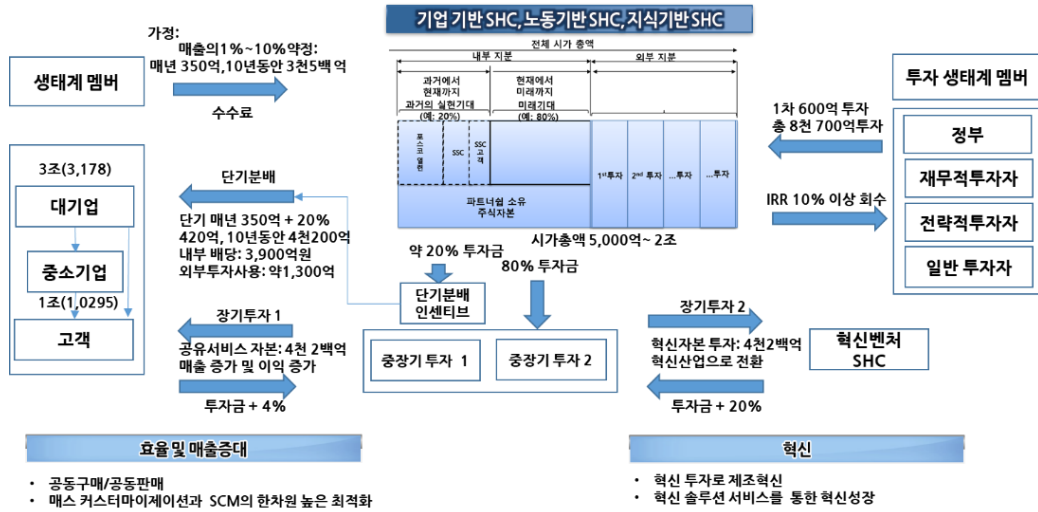


Figure 11 SHC 투자모델과 회수모델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멤버수수료수익	350	350	350	350	350	350	-	-	-	-
투자수익		66	152	261	402	580	803	848	896	946
전체수익	350	416	502	611	752	930	803	848	896	946
배당	273	325	391	477	586	725	627	662	699	738
내부멤버배당	273	292	313	334	352	363	313	331	349	369
외부투자자배당	-	32	78	143	235	363	313	331	349	369
시가총액	5,460	6,493	7,826	9,539	11,727	14,500	12,530	13,234	13,977	14,762
멤버지분	100%	90%	80%	70%	60%	50%	50%	50%	50%	50%
외부투자금	607	721	870	1,060	1,303	1,611				
내부멤버분배 목표	420	420	420	420	420	420				
단기내부분배목표-배당	147	128	107	86	68	57				
단기인센티브분배	420	420	420	420	420	305				
	69%	58%	48%	40%	32%	-19%				
미래장기분배용	460	594	763	974	1,235	1,554	313	331	349	369
	76%	82%	88%	92%	95%	96%				

Table 1 SHC의 시가총액/내부분배/외부투자

생태계 멤버들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매년 매출의 0.5%를 SHC에 수수료로 내어서 350억 수수료 수익이 일정하게 지불되도록 한다.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매출이 줄어든다면 수수료 지불 %를 늘리거나 대기업이 좀더 지불하면 된다. 이때 SHC의 매출 연동 수수료는 비용과 세금 합쳐서 22%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생태계 멤버들과 투자자들에게 배당된다.

이때 외부투자자로부터 SHC의 지분을 매년 11.1%씩, 그리고 분기별로 2.78%씩 팔아 투자금을 받는다. 이때 외부 투자는 내부지분이 50%까지 지분을 팔고(2023년까지) 2014년 이후는 또 다른 SHC를 설립한다.

내부멤버는 배당과 함께 투자금의 단기분배(미리계약된 인센티브)를 내부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아 수수료 지불한것의 120%를 지급받아 단기적으로 20%의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된다.

장기투자의 투자수익은 혁신투자는 20%투자수익, 내부투자는 5%투자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다.

투자자 수익은 SHC가 자본시장에 상장된다면 평균 30%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2. 4차산업 혁명 CCT 플랫폼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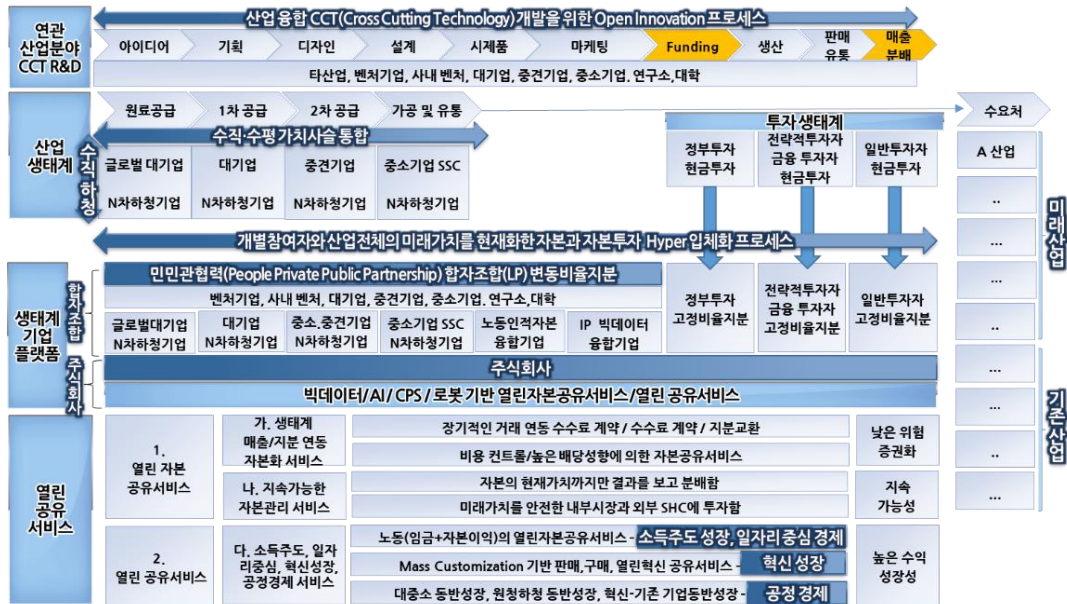


Figure 12 SHC기반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플랫폼

4차산업혁명의 CCT 기술은 제조와 서비스업을 융합하고 모든 산업을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고 융합한다. 이러한 CCT기술을 적용한 상태에서도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를 적용하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일자리중심경제와 공정경제를 이룰 수 있다.

VII.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제인 정부의 사람중심경제가 수요주도성장과 공급주도성장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그것은 수요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 성장, 소비주도 성장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소득주도 성장은 소비주도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기존 문제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지식, 사람, 기업에 SHC를 적용하여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구조를 만들어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을 수요주도 성장 전체, 소비주도성장, 투자주도성장, 수출주도성장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SHC기반 사람중심경제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을 지식기반 SHC, 노동인적자본 SHC, 기업 SHC로 이루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자본과 인적자본에 대규모 투자가 되어 혁신성장을 이룰수 있다. 그리고 대중소 상생 SHC와 혁신기업과 기존기업 SHC, 중소기업 연합 SHC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공정경제를 이루고, 많은 투자와 성장 그리고 노동인적자본기반 SHC를 활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를 혁신적으로 창출해 일자리 중심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SHC기반 융합경제는 사람중심경제의 4가지축을 지속가능한 대규모 투자에의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동시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와 일자리 중심경제를 이룰 수 있어 SHC기반 사람중심경제의 기본 기업지배구조와 플랫폼 경제의 기본 인프라 플랫폼이 된다.

또한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플랫폼을 기존 4차산업혁명의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노동소외와 독점적 성장을 추구하는 플랫폼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대규모 효율적 효과적 투자와 혁신성장에 의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적용 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SHC 투자 회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향후에 다양한 산업에 SHC기반 사람중심경제 4차산업혁명 플랫폼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소비를 자본화하고 그것을 산업 SH와 연결한 국가차원의 최상위 SHC를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Hock, D. (2000). "Birth of the Chaordic Age" . Berrett-Koehler Publishers.
- 김대영. (2016 가을). 사회영향채권(Social Impact Bond)과 희년경제의 해법. "Oikonomos Vol 3 No 2" , 47-78.
- 김대영. (2017). 4차산업혁명을위한 SHC기반 융합경제-수요주의 경제학과 공급주의 경제학의 융합. "Oikonomos Vol 4, No 1, 2017 봄" , PP 55-94.
- 김대영, 심상달, & 장원석. (2014).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금융연구원.김상윤. (2017). "한국형 4차 산업혁명 Framework과 3대 추진역량." POSRI.
- 마추카토마리아나. (2015). "기업가형 국가 ." 서울: 매경출판.
- 이병기. (2004년 12월). "기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우관. (1999). "그룹기업의 투자 및 고용행태와 내부자본시장." 한성대학교.
- 장웅성. (2017).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강관산업의 미래발전전략. "2017 Korea Pipeline Conference" . 서울, 서울: 산업통산자원 R&D 전략기획단.
- 장윤중정은미. (2017.9.28).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전략." 세종시: 산업연구원.
- 정부관계부처합동. (201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관계부처합동.
- 정영조. (2009). 양면시장이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 전략, 학위논문(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 혹디. (2002년). "카오디." 청년정신.